

회개의 첫 출발

- 작성일: 2010년 8월 9일 (월) 오전 8:20
- 작성자: 김기자 (서울 주진리교회)

오늘 만날 생명과 할 일에 대해
벽에 기대어 앉아 눈을 감고 곰곰이 하나씩
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이 “나와 대화할까?”라고
말씀하셨습니다.

저는 얼른 반갑게 “네, 주님 아주 좋지요.”라고
반응했고 주님께서 제 앞에 가부좌로 앉으시며
웃고 계셨습니다.

새벽에 만날 때와 오전에 만날 때,
그리고 저녁에 만날 때 모두 다른 시간에
주님을 뵈는 그 느낌이 달라
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.

“주님, 주님을 새벽이 아닌
이렇게 아침에 뵈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요.
새벽과는 다른 설렘이 있고
부드럽고 인자하신 그 사랑이
너무나 따스하게 느껴져 주님 사랑
더 하고픈 마음이 생기네요.”

예수님 ; 나는 꼭 새벽에만 보이고
대화하는 예수님이 아니다.
이렇게 늘 고요함 가운데서 나를 부르면
난 언제든지 온단다.

“오늘 새벽에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서
‘오늘은 주님 뵈는 시간이 걸리는구나.’라고
생각하고 혹여나 하는 마음에 보고 싶어
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고 있는데
응답하실 것이라는 생각은 못 했습니다.
그런데 이렇게 오시니 더 기쁘고 감사합니다.
사랑합니다.”

예수님 ; 사랑한다. 사랑이노라.
그 사랑 안고 휴거하는 거란다.
말씀에만 치우쳐도 안 되고,
말씀을 사랑으로 담아서 휴거하는 것이다.
사랑이 가득하려면 그 전에 회개를 하고

사랑을 키워야지.

하늘 모시는 자들은 그 사랑의 감각이
아주 빨라야 해.

내가 언제 오고 가는지
마음부터, 심정부터 그 영의 감각이
사랑으로 늘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한다.
사랑하니 온 세상이 다 사랑으로 보이잖느냐.
신부는 신랑을 충분히 마음껏 사랑해야 한다.
신랑은 이미 신부를 100% 폭발적인 사랑을 해서
땅의 신부 집 혼인 잔치하며
그 잔치를 사랑으로 더 빛내고 있잖느냐.
잔치에 온 손님들이 느끼기에도
신랑이 신부를 너무 사랑하는
그 사랑의 향기 솔솔 나게 말이다.

끝이다.

이제 정말 끝 내가 온다.
하늘에서 신랑이 오는 소리 알리고
신랑은 도적같이 신부 데리러 곧, 곧 온다.
미적미적 할 때가 아니고,
여유 부릴 때가 아니다.
끝이다 끝!

너희는 준비가 얼마만큼 되었느냐?
먼저는 과거적 묵은 회개들을 다 청산했느냐?
부족하다 느끼면 지금 이 순간부터
진정으로 깨닫고 고백하라.
매 순간 힘겨워 하늘 원망한 것,
환경을 탓한 것,
형제들을 헐뜯은 것,
서로 상처주고 받으며 지금도
그 분노와 화가 남아 그 상처 안고 사는 것,
섭리를 탓했던 것,
선생에게 서운하다 했던 것,
세상의 것을 더 크게 보았던 순간들,
서로가 서로를 이기려고
형제끼리 짓밟고 자기를 드러내려 했던 것,
각종 거짓말, 각종 죄악을
하나씩 생각해 보아도 기억에 안 나면
빈 노트에 적어 보아라.
적는 순간 더 절감하며
깨달아지는 것이 있을 것이다.
온전한 회개를 하면
회개의 친구처럼 따라 다니는 게 사랑이다.

섭리사에 대한 회개를 하나하나
회개하는 자에게는
선생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
선생의 사랑이 물밀듯이 들것이요,
자기 죄악을 회개하는 자에게는
나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
예수의 사랑이 물밀듯이 올 것이요,
전 지구촌의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는
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
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올 것이다.

자기 자신의 눈이 아닌
하나님의 눈, 성령의 눈, 나의 눈,
선생의 눈으로 보아라.

속히 서둘러 회개하라.
회개부터 하라.
회개할 때 나 예수도 너희 옆에서
돕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.

‘회개 언제 할까?’라고 생각하고,
‘회개 어디서부터 할까?’라고 생각하고,
‘회개 얼마만큼 해야 할까?’하고
생각하는 자들 들어라.

이 시간부터다.
섭리사에 처음 올 때를 떠올려 보아라.
선생을 만나던 그 때를 떠올려 보아라.
생각 되어지는 게 있느냐?
깊이 생각해 보아라.
그때를.
너희 마음에 들어오고,
생생하게 떠오르면 고요한 한숨이
나올 것이다.
너희 마음에 벅참이 있느냐?
너희 마음에 기쁨이 있느냐?
너희 마음에 설렘이 있느냐?
그렇다. 거기서부터다.
첫 출발을 거기서부터 하나씩 해보자.
미안한 마음, 약속 못 지킨 것,
또 다른 죄악들, 사랑 받았던 것,
여러 가지가 하나씩 생각날 것이다.
누구는 30년사, 또 누구는 20년,

10년, 7년, 5년, 3년, 1년..

회개의 시작은 섭리사 온 그날,
첫 발 디딜 때의 날로 해서 생각하며 회개하라.
너희의 회개 첫 시작 출발점은
섭리사 온 그날부터이다.
가장 먼저 할 회개는
섭리사 기쁨으로 사랑으로 만나
지금은 그 사랑과 기쁨을 잊어버리고
너무 익숙한 늪은이로 살거나
감각 없이 무딘 아저씨, 아줌마로 사는
너희의 사랑부터 회개하라.
첫 사랑의 신선하고 설레는 사랑이 아니라
열매가 익을 때로 익어
그 열매에게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그 시점에
곧 주인이 따기도 전
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떨어져 버리는
그 열매처럼
너희는 지금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고
신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보다
늪은 과일처럼 모든 걸 푸념하거나
자포자기하거나
아님 아예 무감각으로 지내는 자 있느냐.
첫 사랑의 회개부터 하자.
너희가 얼마나 사랑스럽고
귀한 내 사랑들인 줄 알고 있느냐.
하늘은 너무나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데
그 사실도 지금 못 느끼고 있다면
그것부터 회개해야 한다.
사랑한다.

회개할 내용을 멀리서 찾지 마라.
가장 근본 사랑의 회개부터 해 보아라.
너희의 마음이 벅차오르고
사랑이 폭발될 것이고
나 예수가 가슴으로 느껴지고
보이리라.

사랑한다.
사랑한다는 말 외에 그 어떤 말이
필요하겠으며 이 순간 중요하겠느냐.
너희와 나 100% 완전한 사랑이면
사탄 박멸 할 것도 없다.
우리 사랑 너무 뜨겁고 향기로워서

사탄은 가까이 오지도 못해.

일어나라.

지치고 느슨한 마음 더 일으켜

싱그러운 내 사랑되자.

자신감을 가지고 내게 한 발짝씩 걸어 와라.

나 예수는 한 발짝 너희 앞에 있노라.

너희가 한 발짝 움직이면

나 예수가 얼른 너희를 안고

사랑으로 너희를 취하리라.

사랑한다.